그 사람 지금은

(14) 84년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김원기씨

"언론 무관심 속 결승 오르자 뒤늦게 생중계"

"LA올림픽에서 저는 메달이 기대되는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결승전 전까지 제 게임은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4년 LA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페더급(62㎏)에서 금메달을 딴 김원기(44)씨가 22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는 당시 올림픽 첫 시합을 4일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왼발 인대 부상을 입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달리기 등 운동을 할 수 없어 밥을 거의 굶어가면서 체중 조절을 했다. 시합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시합 당일 계체량을 간신히 통과했다.

그는 첫날 3번의 게임에서 너무 쉽게 승리했다. 그리고 둘째 날, 4번째 시합은 부전승이었고, 5번째 게임의 상대는 세계선수권 우승자를 꺾고 온 일본의 세이치 오사나이였다. 당시 한국 언론은 일본 선수의 승리를 예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4대2로 역전승했다. 그리고 스위스 선수와 준결승전. 하지만 여전히 매스컴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이 경기에서 허리기술로 폴승을 거두며 은메달을 확보했다. 언론은 드디어 그를 주목했다. 그리고 스웨덴의 유한슨 선수와 결승전은 처음으로 생중 계됐다.3대 3 동점이었지만 큰 기술 점수를 확보한 그가 금메달을 땄다. LA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이었다.

김원기(가운데) 선수가 지난 1984년 LA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2㎏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다른 메달리스트와 함께 시상대에 섰다.

첫 경기 4일전 왼발 인대 부상으로 굶어가며 체중 조절…겨우 계체량 통과

"기자회견장으로 가는데 감독님이 '전두환 대통령 각하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감독님 지도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어머니, 김진선 국군체육부대장, 그리고 처음 레슬링을 가르쳐준 최경수 선생님께만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대우가 달라졌다. 하형주·김재엽·유인탁 등 금메달 기대주들이 숙소로 찾아와 비결을 묻는가 하면 교포들과 유명 인사들로부터 격려금이 쏟아졌다. 귀국 후에도 이런 대접은 이어졌고 어머니 정일래(86)씨 까지 스타가 됐다.

김원기씨는 함평 백호리 보화촌의 한 가난한 농가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 2 때 돌아가시는 등 가난 때문에 그는 광주 유학을 포기하고 1977년 함평농고(현 함평 골프고)에 입학했다. 그리고 막 생긴 레슬링부에 들어갔다.

"1976년 양정모 선수와 함께 레슬링 선수로 뛴 최경수 선생님이 부임해 와서 '레슬링 잘하면 대학도 가고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듣고 레슬링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 2 때 처음으로 전국체전 전남 대표선수로 뽑혔다. 하지만 대표 선수가 모두 나선 일본 전지훈련에 그만 제외됐다. 유망주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물고 훈련에 열중, 결국 그는 체전에서 우승했다.

"그 때 이후로 감독님이 저에게 정을 줬어요. 올림픽 나갈 때 입었던 티셔츠와 팬츠를 선물로 줬지요"

약 력

- ▲1961년 함평군 대동면 출생
- ▲함평중·고, 전남대 졸업
- ▲1984년 미국 콩코드 레슬링 대회 금메달
- ▲1984년 LA올림픽 금메달
- ▲현 (사)한국 올림픽챔피언클럽 2대 회장
- ▲현 십자성 마을회 상무이사

고교 졸업 후 그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 전남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했다. 레슬링팀이 막 창단돼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도 매력이었다.

연습 중 부상에 따른 슬럼프도 잠시, 그는 1983년 3월 4학년 때 국가대표에 처음으로 뽑혔다. 그해 8월 터키에서 열린 국제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땄다. 1984년 1월엔 올림픽 대표선수가 됐다.

하지만 그는 졸업 후 실업팀에 스카우트되지 못했다. 여전히 그는 유망주가 아니었든지 배경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국군체육부대(상무)에 입대, 운동을 계속했다.

그는 결국 상무 소속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리고 1985년 제대와 동시에 삼성생명에 입사했다. 하지만 돈과 명예가 생기니까 운동이 잘 안됐다.

"넘어지면 아프고 잘 일어나지지도 않았습니다. 1986년 3월께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에서 후배에게 지면서 은퇴했지요. 그리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989년 5월부터는 삼성생명 호남본부 총무과에서 직접 일을 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91년 2월 신제주영업소장, 93년엔 중광주영업소장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12월엔 문은경(42)씨와 결혼도 했다. 하지만 직장생활에서도 승승장구하던 그는 빚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2001년 10월 명예퇴직하며 퇴직금으로 빚을 청산했다. 그리고 지금의 직장인 '십자성 마을회'의 안산 복지공장 상무이사를 맡을 때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을 보냈다.

고아출신 선수 5명 양아들로 맞아 재소자 정신교육 등 봉사활동 앞장

"퇴직 후 2003년 6월까지 반실업자 생활을 했어요. 주유소 세차장과 학습지 판매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지요. 이민이나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는 그러다 우연히 월남참전 상이용사들을 위한 보훈단체 성격의 '십자성 마을회' 복지 공장의 강대일 사장을 만나 현재의 일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는 계측제어설비 등을 납품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다. 시험관 시술을 9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물론 아직도 포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특별한 아들이 5명이나 있다. 호적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레슬링하는 고아 출신 5명을 양아들로 맞아들인 것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용돈도 보내주고 있다. 무엇보다 레슬링 선배로서의 조언이 소중하다.

그는 또 영등포·안양·춘천·교도소를 다니며 재소자 정신교육을 하고 있으며 함평 레슬링 후원회 사무국장, 함평군청 레슬링 명예감독, 함평 천지 홍보대사 등을 맡아 애향심을 불태우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오수와 의견설화

들불 속 주인 구한 개 기려 82년부터 의견문화제 개최

개띠 해인 올 초에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개가 당뇨 환자인 주인을 구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광주 양림동 157번지에는 양촌 정엄의 심부름을 충실히 따르다 죽은 개를 기려 1611년 세운 충견비가 있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에는 의구총(義狗塚)도 있다.

개무덤 설화의 진원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남원과 임실 중간에 1992년 둔남면을 개칭한 오수면이 있다. 1906년까지 남원 땅이었다가 임실군으로 넘어간 오수는 조선시대까지 전라좌도 5개 고을 12역을 관할한 찰방역(察訪驛)이 있었다.

바로 오수의 연원 속에 의롭고, 충성스런 개 얘기가 담겨있다. 전라도 안찰사를 지낸 최자(崔滋·1188~1260)는 보한집(補閑集)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원동산에 있는 의견비(義犬碑).

거령현 김개인은 개 한 마리를 길렀고, 매우 귀여워했다. 어느 날 개와 함께 나들이 했다. 그는 술에 취에 길가에서 잠들었고, 들불이 번졌다. 개는 근처 냇물에서 몸을 적셔 와 주위 들풀에 비벼 불길을 막은 뒤 기운이 다해 죽었다. 그가 깨어나 개를 위해 무덤을 만든 뒤, 지팡이를 꽂아 두었다. 이 지팡이가 자라났기 때문에 땅 이름을 '오수(獒樹)'라고 불렀다.

오수리 원동산 322번지 느티나무 숲 일대에 1972년 전북 민속자료 제 1호로 지정된 의견비(義犬碑)가 있다. 본디 웃말(上里) 강변에 있던 개비가 호안개수공사로 사라졌다. 1939년 현상금 20원을 걸고 찾아내 1955년 현 위치로 옮겨 세웠다. 우람한 버드나무가 고사한 그루터기 근방에는 정원시 찰방비를 비롯 9개의 비석도 서 있다.

김개인은 오수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시오리 떨어진 지사면 영천리에 살았다. 고려 때 역촌은 번화가이자 물산의 집산지다. 구시장통 321번지 일대는 '역말'과 '마방거리'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서남쪽 개울건너 관월마을 312번지에는 1979년 지방유형문화재 86호로 지정된 석불이 있다. 이 돌비를 주민들은 '미륵방'이라고 부른다.

오수번영회에서는 1975년 의견비각을 짓고, 1982년부터 의견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1999년 의견공원을 착공하고, 오수개 육종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애견동물원, 민속장터, 찰방역 복원, 우마차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도 전개될 예정이다.

오수의 의견 설화는 고려 무신정권이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살신보은을 기대하려는 목적으로 전파했다는 설도 있다. 병술(丙戌)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개보다 못한 세태를 맞이하면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오수와 함께 개 무덤을 노래한 '견분곡(犬墳曲)'을 읊는다. "사람은 짐승이라고 불리면 부끄러워하지만, 공연히 큰 은혜를 저버린다네. 사람으로서 주인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어찌 개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